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57, No. 2

OPEN ACCESS

공공도서관 경제적 가치 측정 체계의 국내 적용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Economic Valuation Frameworks for Public Libraries in Korea

김 혜 영(Hyeyoung Kim)**
표 순 희(Soon Hee Pyo)***

〈 목 차 〉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해외 공공도서관 경제적 가치 측정 사례 분석
Ⅳ. 국내 공공도서관 경제적 가치 측정 적용
Ⅴ. 결론 및 제언

요 약 :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측정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경제적 가치 측정 방법론과 해외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적용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가치 측정 사례를 대상으로 이용가치, 비이용가치, 지식재산권(IP),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 방법을 분석하고,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수집 항목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해외의 가치 측정은 자료 대출 중심의 이용가치 측정에서 비이용가치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포함하는 다차원적 측정으로 확대되고 있었으며, 감가상각률과 데드웨이트 적용 등을 통해 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환경과 통계 기반을 고려하여 7개 가치 영역을 도출하고, 단계적 가치 측정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설명책임성과 정책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경제적 가치 측정 체계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 공공도서관, 경제적 가치 측정, 조건부가치측정법, 비용편익분석, 도서관 성과평가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propose directions for developing an economic valuation framework for public libraries in Korea by examining valuation methodologies and major international cases. To this end, public library valuation studies conducted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Canada, and Australia were analyzed, focusing on use value, non-use value, intellectual property (IP), and economic impact assessment. In addition, the data collection framework of the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was reviewed to assess its applicability to the Korean context. The analysis revealed that public library valuation has evolved from measuring use value based primarily on circulation services to multidimensional approaches incorporating non-use values and economic impacts. International cases also employed mechanisms such as depreciation rates and deadweight adjustments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valuation result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seven value domains and a phased valuation roadmap that reflect the service environment and statistical infrastructure of Korean public libraries. The study contributes by providing a foundation for developing an economic valuation framework that can strengthen accountability and support the policy legitimacy of public libraries in Korea.

KEYWORDS : Public Libraries, Economic Valuation,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ost-Benefit Analysis, Library Performance Evaluation

* 본 연구는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의『공공도서관 경제적 가치 측정 모형 개발 연구』의 일부를 확장 발전시켜 논문으로 작성한 것임.

**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kimhy@cju.ac.kr / ISNI 0000 0004 8396 9721) (제1저자)
*** 숭의여자대학교 문헌정보과 조교수(shpyo88@sewu.ac.kr / ISNI 0000 0004 6072 9645)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6년 5월 21일 • 최초심사: 2026년 5월 30일 • 게재확정: 2026년 6월 15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7(2), 153-182, 2026. http://dx.doi.org/10.16981/kliss.57.2.202606.153

※ Copyright © 2026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Ⅰ. 서 론

국내 공공도서관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이하 NLSS)을 통해 운영 실적을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운영평가는 시설과 장서, 인력, 예산 등 도서관 운영의 기반을 점검하고 봉사대상인구 대비 투입 수준을 진단함으로써 도서관 정책 수립과 자원 배분의 근거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현행 평가는 주로 투입(input)과 산출(output) 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도서관 서비스가 이용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실질적인 변화와 가치를 충분히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대출 건수나 방문자 수와 같은 지표는 서비스 이용 규모를 보여줄 수는 있으나, 그 활동이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적 효과까지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한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은 해외에서도 일찍부터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도서관 평가의 초점은 투입과 산출 중심의 평가에서 결과(outcome) 중심 평가로 점차 확대되었다. 결과 중심 평가는 도서관 서비스가 이용자의 지식, 기술, 태도, 행동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주목하며,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후에는 이러한 성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제시함으로써 도서관의 사회적 기여를 보다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려는 경제적 가치 측정 연구가 등장하였다. 특히 정책결정자와 재정 지원 주체에게 도서관의 성과를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 측정은 도서관 지지와 옹호(advocacy)의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국내에서도 도서관 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 초기 연구는 디지털도서관(김동석 외, 2003), 온라인 정보(김희섭, 정영미, 2005), 단행본 원문정보 서비스(류희경, 이두영, 2006), 공공도서관 대출 서비스(표순희, 2006) 등 개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2009)는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경제적 가치 측정을 실시하여 공공도서관에 1을 투자할 경우 3.66의 가치가 창출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국립도서관 분관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이하 CVM)을 적용한 연구(Kwak & Yoo, 2012)도 수행되었다.

그러나 국내의 가치 측정 연구는 개별 사례 연구와 일회성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국가 차원의 후속 연구로 활발하게 이어지지 못하였다. 반면 해외에서는 가치 측정 방법론의 고도화와 적용 범위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Holt et al.(1999)은 세인트루이스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시간가치와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에 기반한 시장가치 측정과 함께 CVM을 적용함으로써 공공도서관 가치 측정의 방법론적 기반을 제시하였다. 이후 미국에서는 플로리다(Griffiths et al., 2004; Pooley et al., 2010)와 사우스캐롤라이나(Barron et al., 2005)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영국에서는 Usherwood와 Linley(1999)의 연구를 계기로 공공도서관 가치 측정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으며, 영국국립도서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가치 평가 방법론이 적용되고 검증되었다(Allinson et al., 2023; Pung et al., 2004; Tessler, 2013).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주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투자수익률(Return on Investment, 이하 ROI)뿐 아니라 사회적투자수익률(Social Return on Investment, 이하 SROI)을 산출하여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창출하는 성과를 측정하고 공개하고 있다(Broad & Ortiz, 2016; SGS Economics and Planning, 2020). 이처럼 경제적 가치 측정은 단순한 성과평가를 넘어 도서관의 사회적 기여와 투자 효과를 입증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정책보고서의 형태로 정기적으로 발표되어 의회와 지방정부, 시민에게 제공되고 있다.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측정은 복잡한 방법론과 상당한 조사 비용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측정 방법을 활용하여 가치를 계량화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과 선호를 기반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결과를 화폐 단위로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서관 성과를 설명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받아 왔다(표순희, 2008). 그러나 가치 측정은 어떤 가치를 측정 대상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적용 가능한 방법론과 산출 결과가 달라지는 특성을 지닌다. 또한 해외에서 활용되는 가치 측정 모형은 각국의 출판시장 구조, 통계 기반, 지역사회 환경 등을 반영하여 설계된 것이므로 이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내 공공도서관에 적합한 경제적 가치 측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외 주요 사례에서 제기된 방법론적 쟁점과 대응 방안을 분석하는 동시에, 국내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환경과 통계 기반을 검토하여 적용 가능한 측정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치 측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은 도서관 지원과 정책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개별 측정 결과뿐만 아니라 측정 방법론과 연구 동향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측정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가치 측정의 개념과 방법론을 검토하고, 해외 주요 사례를 핵심 쟁점별로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국내 공공도서관에 적용 가능한 경제적 가치 측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가치 측정 프로젝트가 방법론적으로 성숙하고 질적으로 고도화된 2010년 이후의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되, 현재의 가치 측정 체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2000년대 초반의 주요 선행연구도 함께 검토하였다. 분석 대상은 가치 측정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주요 프로젝트로 한정하였으며, 문헌조사와 사례분석을 통해 국가별 가치 측정 방법론과 적용 사례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서비스별 가치 산정 방식, 할인율 적용 기준, 지역경제 파급효과 산출 방법 등 가치 측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공공도서관의 가치는 어떠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경제적 가치 측정에는 어떠한 방법론이 활용되고 있는가?

둘째,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측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은 무엇이며, 해외 주요 국가는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가?

셋째, 국내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환경과 통계 기반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며, 이를 고려할 때 적용 가능한 경제적 가치 측정 방법론은 무엇인가?

넷째, 국내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측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향후 보완되고 논의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Ⅱ. 이론적 배경

1. 공공도서관의 가치와 경제적 가치

공공도서관 가치는 영향력, 결과, 혜택 등의 유사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그 실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영향력(impact)과 결과(outcome)는 서비스 이용 이후에 나타나는 이용자의 기술, 행동, 지식, 태도의 변화를 가리키며, 제공자나 이용자의 사전 의도와 무관하게 가치중립적으로 발생한다(Poll, 2003). 반면 혜택(benefit)은 이러한 변화 가운데 부정적 측면을 제외하고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유용한 효과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표순희, 2008). 나아가 가치(value)는 이와 같은 편익과 영향력, 결과로부터 파생되는 긍정적 효용을 이용자가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내리는 최종적이고 총체적인 평가의 산물로 정의할 수 있다(표순희, 2008). 따라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경제적 가치는 시장에서의 교환 가격이 아니라, 도서관 서비스가 개인의 복리와 지역사회의 후생에 기여하면서 발생하는 총체적 효용을 화폐 단위로 계량화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Aabø & Strand, 2004).

공공도서관 서비스는 시장에서 직접 거래되지 않는 비시장 재화이자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가격으로 결정되는 교환가치보다는 이용자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효용을 중심으로 그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Aabø, 2005b). 이에 따라 오늘날 공공도서관의 가치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직접 향유하면서 발생하는 이용가치(use value)와 실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이용가치(non-use value)를 포괄하는 총경제적 가치(Total Economic Value, 이하 TEV) 체계 안에서 고찰되어 왔다(Fujiwara et al., 2019).

이용가치는 도서관 서비스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얻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편익을 말하며, 이는 다시 직접 이용가치와 간접 이용가치로 나뉜다. 직접 이용가치는 도서 대출, 정보

검색 서비스 이용,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도서관의 핵심 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즉각적으로 얻는 혜택을 의미한다(표순희, 2014; Reyes & Dorado, 2017). 간접 이용가치는 도서관에서 습득한 정보나 지식이 이용자의 학습 성과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수익 창출의 발판이 되는 파생적인 혜택을 뜻한다(Aabø, 2005b; Fraser et al., 2002). 반면, 비이용가치는 현재 도서관을 직접 이용하지 않는 대중이나 지역 주민이 도서관이라는 인프라의 존재 자체에 부여하는 심리적, 사회적 가치로서, 도서관이 공공재로서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적 외부효과를 포괄한다(Fraser et al., 2002; Holt et al., 1996). 세부적으로는 미래의 이용 기회를 유지하려고 지불하고자 하는 선택가치(option value), 도서관의 존재 자체에서 얻는 심리적 만족인 존재가치(existence value), 후세대에 자산을 물려주려는 의지에서 비롯되는 유산가치(bequest value), 타인의 이용을 배려하는 데서 얻는 이타적 가치(altruistic value)로 구분된다(표순희, 2008; Aabø & Strand, 2004).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공공도서관의 가치를 둘러싼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위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영향력과 결과는 서비스 이용이 가져온 객관적 변화를 가리키고, 편익은 그 변화 가운데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긍정적 효과를 의미하며, 가치는 이러한 편익에 대해 이용자가 부여하는 주관적 효용 판단까지 더해진 최상위 개념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경제적 가치는 이 가운데 도서관 서비스가 창출하는 효용을 화폐 단위로 환산한 것으로, 이용자가 직접 누리는 이용가치와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이용가치를 포괄하는 총경제적 가치(TEV)를 그 측정 범위로 한다. 한편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benefit'을 '편익'으로 옮기지만, 본 연구에서는 문맥에 따라 '편익'과 '혜택'을 함께 사용하였다.

2. 경제적 가치 측정 방법론

비시장 재화인 공공도서관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경제학에서는 여러 방법론을 발전시켜 왔으며, 측정하려는 가치의 범위에 따라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가치 측정은 개인이 서비스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어떤 방식으로 도출하는가에 따라 현시선호 접근법과 진술선호 접근법으로 나뉜다.

현시선호(revealed preference) 접근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용 행위를 바탕으로 가치를 측정하므로, 이용을 전제로 하는 이용가치만 측정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시간가치 측정법(cost of time)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투입한 시간의 기회비용을 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실제 행동 데이터에 기반하여 객관성이 높으나 주관적 만족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표순희, 2008). 시장유추법(market analogy method)[1]은 도서관 서비스를 민간 시장의 유사한

1) 이 가치 측정 접근 방법은 한국개발연구원(2021, 170) 지침에서 '대체비용접근법'으로 설명되는 한편, Boardman

대체 서비스 가격으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편익을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나 시장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면 가치가 과다하게 측정될 수 있어 보정이 필요하다(Howard Fleeter & Associates, 2021). 이밖에 여행비용접근법(travel cost method)과 속성가격접근법(hedonic property price)도 현시선호에 기반하지만, 엄격한 가정과 복잡한 분석을 요구하여 도서관 분야에 적용하기 어렵다(정혜경, 정은주, 2007; 정혜경 외, 2009). 반면 편익이전(benefit transfer)은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가치를 새로운 평가 대상지의 특성에 맞추어 조정하는 기법으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 신속하게 가치를 측정할 수 있어 유용한 대안으로 주목받는다(Fujiwara et al., 2019).

진술선호(stated preference) 접근법은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도 개인이 암묵적으로 가치를 부여한다고 전제하고, 그 가치를 직접 진술하게 하여 측정한다. 대표적인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이하 CVM)은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이하 WTP)이나 수용의사액(Willingness to Accept, 이하 WTA)을 도출하는 기법이다. CVM은 시장 가격이 없는 공공재의 가치를 측정하는 강력한 도구이며, 특히 존재가치나 유산가치와 같은 비이용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Aabø, 2005b). 다만 응답자의 긍정 편향을 통제하기 위해 정교한 설문 설계와 통계적 보정이 요구된다(Kwak & Yoo, 2012).

3. 공공도서관 가치측정 연구 동향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들은 도서관의 무형적 편익을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과 투입 대비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평가 지표를 정교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방법론을 정교화하려는 이론적 논의는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되었다. 도서관 서비스의 경제적 편익을 계량화할 성과 지표와 시장가치 산출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 연구(Sumsion et al., 2003)가 이루어졌고, 시민들의 인식 속에 담긴 이타적 동기까지 포괄함으로써 비이용가치 측정에서 CVM이 갖는 타당성을 실증한 연구(Aabø, 2005b; Aabø & Strand, 2004)가 뒤를 이었다. 또한 그간 축적된 가치 측정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법론의 지형을 정리한 작업(Missingham, 2005)도 수행되어, 이후 연구가 참조할 이론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현장에서는 개별 도서관을 넘어 국가나 주 단위의 대규모 측정이 이어졌다. 미국에서는 여러 주에서 CVM과 시간가치, 시장유추법을 결합하여 총가치를 산출하는 연구가 잇따랐으며(Barron et al., 2005; Griffiths et al., 2004; Skurla & Cyr, 2011), 영국에서는

et al.(2018)은 시장유추법(Market analogy method)으로 지칭하고 있다. 또한 OECD(Pearce et al., 2006)에서는 이를 현시선호법 내 방어적 지출법으로 기술하는 등 학계와 기관별로 용어가 상이하여 아직 통일된 명칭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국립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고 검증함으로써 이후 가치 측정의 모범이 되었다(Pung et al., 2004; Tessler, 2013). 유럽에서도 CVM이 안고 있는 지불의사액과 수용의사액 간의 격차 문제를 보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고(Hajek & Stejskal, 2015), 노르웨이의 국가 단위 연구처럼 도서관 가치가 투입 비용을 크게 상회함을 입증한 사례도 축적되었다(Aabø, 2005a).

나아가 최근의 연구는 순수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사회적투자수익율(Social Return on Investment, 이하 SROI)는 민간 부문의 투자수익률(Return on Investment, 이하 ROI)이 지닌 재무적 관점을 넘어, 도서관 활동이 창출하는 무형의 사회적 편익을 계량화하는 평가 지표로 주목받아 왔다. 객관적 관찰 지표와 주관적 만족도 지표를 결합하여 공공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입증하려는 연구(Gómez-Zapata & del Barrio-Tellado, 2023; Reyes & Dorado, 2017)나,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을 계기로 도서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민의 총체적 가치를 재평가한 연구(Gómez-Zapata et al., 2025)는 가치 측정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SROI는 캐나다의 가치 측정에 큰 영향을 미쳐, 온타리오와 인근 북부 지역 도서관은 SROI에 기반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도서관을 커뮤니티 허브로 규정하여 사회적 포용과 건강, 인적 자본 형성 등 여러 영역에서 가치를 측정하였다(Broad & Ortiz, 2016).

국내의 연구는 개별 서비스에서 출발하여 점차 도서관 전체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초기에는 디지털도서관(김동석 외, 2003), 온라인 정보(김희섭, 정영미, 2005), 단행본 원문정보 서비스(류희경, 이두영, 2006), 대출 서비스(표순희, 2006)와 같이 개별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후 시간가치와 대체 서비스 잉여가치, CVM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이용가치 측정 방안이 설계되면서 방법론적 기반이 갖추어졌고(표순희, 2008), 국가 차원에서 공공도서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측정(문화체육관광부, 2009)과 도서관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측정(Kwak & Yoo, 2012)으로 이어졌다.

종합하면 해외에서는 다차원적 측정 방법론과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 이하 CBA), ROI, SROI와 같은 평가 지표를 결합하여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에 창출하는 경제적 파급력과 무형의 편익을 꾸준히 입증해 왔다. 이에 비해 국내 연구는 특정 방법론에 편중되거나 개별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일회성 측정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도서관의 다면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포착하는 데 한계를 보여 왔다. 더욱이 해외 주요 국가들이 어떠한 정책 환경에서 어떤 측정 요소를 선택하고 방법론을 결합하여 적용해 왔는지, 그 환경 적응적 특성을 깊이 있게 분석한 국내 연구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 여러 국가가 수행한 경제적 가치 측정 사례를 주요 쟁점에 따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 국가 차원의 경제적 가치 측정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Ⅲ. 해외 공공도서관 경제적 가치 측정 사례 분석

1. 이용가치 측정과 시장가치

가치 측정의 출발점은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가운데 무엇을 측정 대상으로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각 서비스를 어떠한 기준에 따라 화폐 단위로 환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다.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가치 측정의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자료 대출을 중심으로 핵심 서비스의 가치를 산정하는 비교적 단순한 접근이다.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의 도서관 가치 계산기(Library Value Calculator)는 도서 대출과 참고 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를 대상으로 시장가치를 적용하여 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이용자가 자신의 도서관 이용 가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도서관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직관적으로 제시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는 도서관 서비스를 민간시장에서 동일하게 구매한다고 가정하고 그 비용으로 가치를 환산하는 시장유추법에 기반한 것으로(Aabø, 2009b), 미국의 여러 주 단위 가치 측정 연구에서도 기본적인 분석 틀로 활용되어 왔다.

두 번째는 다양한 가치 영역을 설정한 후 개별 서비스를 해당 영역에 연결하여 측정하는 방식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의 VOLT(Valuing Ontario Libraries Toolkit)는 〈표 1〉과 같이 문화 및 지역 정체성, 건강과 웰빙, 시민 참여 등 7개 가치 영역을 설정하고, 각 영역에 대응하는 사회적 성과를 SROI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Broad & Ortiz, 2016, 7).

〈표 1〉 온타리오 도서관 가치 측정 도구(VOLT)의 7대 분석 영역

측정 영역	세부 영역	산출식
문화 및 지역 정체성	특별 장서 관리, 지역 문화 행사, 원주민 관련 프로그램 등	컬렉션 가치, 대출 건수, 데이터베이스 비용 등을 조합하여 산정
사회적 포용 및 안녕	접근 가능 자료 제공, 인터넷 접속 지원, 건강/사회 프로그램 등	자료 단가 또는 프로그램 단가 × 이용 건수에서 데드웨이트 차감
인지 및 문해력 발달	정보 접근성 향상,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학습 지도 등	서비스 대체 가격 × 이용 건수에서 데드웨이트 차감
건강과 웰빙	건강 관련 정보 제공, 웰빙 프로그램, 심리적 안녕 지원 등	프로그램 단가 또는 서비스 단가 × 이용 건수에서 데드웨이트 차감
시민 참여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 워크숍, 파트너십 기반 서비스 등	최저임금 기준의 자원봉사 가치 및 파트너십 가치 환산
엔터테인먼트 및 여가	오락적 자료 대출, 성인/시니어 여가 프로그램, 회원 가입 등	자료 단가 또는 프로그램 단가 × 이용 건수에서 데드웨이트 차감
경제 발전	직원 고용 및 훈련, 비즈니스 지원, 도서관 자체 수익 등	인건비와 훈련비, 외부 수익 등을 활용한 비용/수익 기반 계산

캐나다 북부도서관의 VNLT 역시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하되, 북부 지역의 사회 및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지표를 수정하고 보완하였다(Broad & Ortiz, 2018). 영국의 EVOLS(Economic Valuation of Library Services)는 〈표 2〉와 같이 11개 가치 영역을 중심으로 측정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증진이나 고독감 완화와 같은 사회적 편익까지 포함하여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였다(Gordon et al., 2023).

〈표 2〉 EVOLS 모델의 11개 가치 측정 영역 및 측정 기준 요약

측정 영역	측정 내용	측정 영역	측정 내용
도서 및 미디어 대출	도서 및 디지털 매체 대여를 통한 구매 비용 절감 및 대체 가치	외로움 해소	사회적 고립 방지에 따른 우울증 치료비 및 생산성 손실 절감 가치
브라우징 및 정보 탐색	관내 체류를 통한 독서 및 탐색 행위에 부여되는 여가 시간 가치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교육을 통한 이용자의 직무 역량 강화 및 경제 활동 기회 가치
디지털 서비스	무료 Wi-Fi 및 공용 PC 이용 편익의 민간 이용료 환산 가치	지역사회 지원	사서의 전문 안내 및 기관 연계 서비스가 제공하는 행정 효율성 가치
도서관 내 행사	독서 모임, 건강 클래스 등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문화적 편익	안식처 제공	혹한기 물리적 공간 제공을 통한 가구당 난방비 절감 및 심리적 안전 가치
커뮤니티 허브	사회적 결속력 강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사회적 자본 가치	전문 지원 및 조언	행정 절차 지원 및 자살 예방 등 고관여 개입의 생산성 보존 가치
건강 혜택	보건 정보 제공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 및 국가 의료비 절감액		

가치 측정에서 또 하나의 핵심 쟁점은 서비스별 단가를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있다. 동일한 서비스라 하더라도 적용하는 단가와 환산 기준에 따라 산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 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평균 도서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일정 수준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하는 방식이 활용되었다. 오하이오 공공도서관 연구는 도서 대출 가치를 산정할 때 평균 신간 구입가격에 50% 할인율을 적용하였다(Howard Fleeter & Associates, 2021, 9).

참고 서비스는 전문 인력의 노동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미국도서관협회는 건당 약 7달러를 적용하였으며, 토론토 공공도서관은 시간당 약 14.11달러(CAD)를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이 밖에도 메인주와 산타클라라 등은 각각 15.00달러와 16.72달러의 단가를 적용하여 참고 서비스의 가치를 계산하였다(Jarrett & Lewandowski, 2017). 공공 컴퓨터 이용은 민간 유료 컴퓨터 대여 서비스의 이용 요금을 활용하였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미국 비영리단체인 Independent Sector가 발표하는 자원봉사 노동가치를 적용하였다. 텍사스주의 경우 시간당 25.11달러가 활용되었다(Jarrett & Lewandowski, 2017, 16).

〈표 3〉은 텍사스주립도서관이 적용한 서비스별 가치 산정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Jarrett & Lewandowski, 2017, 13-30). 텍사스주립도서관은 참고서비스,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이용, 자료 대출, 공공컴퓨터 이용 등 주요 서비스별로 시장대체가치와 선행연구 사례를 검토하여 단가를 산정

하였다. 특히 자료 대출은 선행연구에서 적용된 할인된 자료 가치를 참고하여 산정하였으며, 관내 열람은 대출 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한 후 추가 감액을 적용함으로써 이용가치의 과대 추정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이용과 참고서비스 등 시장가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영역에서는 보수적인 대체시장가격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서비스별 가치 산정의 현실성을 높이고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텍사스주립도서관 기록위원회 서비스별 가치 측정

도서관 서비스	서비스 내용	시장가치 및 산출 기준	산출식	총 가치(USD)
자료 대출	책, DVD, 오디오북 등 도서관 자료 대출	Adults & Young Adults: $9.42 Children: $7.83 선행연구의 할인 적용 단가를 비교하여 산정 DVD 및 CD: RedBox에서1일 대여료 기준 → $1.50/건	총 대출 건수 × $7.83/$9.42	962,349,635
도서관 내 열람	도서관 내에서 열람된 비대출 인쇄자료	2015년 도서 대출 단가 $8.78의 20%만 반영 → $1.76 신뢰도 문제로 다시 50% 감액 → 최종 $0.88/건	총 열람 건수 × $0.88	32,805,863
전자 데이터베이스	TexShare 등 62종 데이터베이스에서의 검색	$2.00/검색당 (데이터베이스 검색의 보수적 시장가치 기준)	총 검색 건수 × $2.00	150,167,176
프로그램	아동, 청소년, 성인 대상의 도서관 프로그램	성인: $12.50 청소년: $9.50 아동: $6.50 (전체 평균 단가는 $8.03/인)	연령별 프로그램 참여자 수 × 해당 단가	48,795,845
참고 서비스	도서관 직원이 제공하는 정보 응답 서비스	초기에 계산된 평균은 $1.86/건 → 시장 가격과의 격차를 반영하여 50% 인상한 $2.79/건으로 상향 조정 ALA: $7.00 Maine: $15.00 SantaClara: $16.72 Toronto: $14.11	총 응답 건수 × $2.79	40,814,812
공공 컴퓨터 이용	도서관의 공공 유선 컴퓨터 단말기 이용	평균 세션 1.16시간 × $15 = $17.40/회	총 사용 시간 × $12.00	293,652,405
무선 인터넷 이용	도서관의 무료 무선 인터넷 접속 서비스	특정 단가 명시 없음: 유사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이용가 기반 보수적 추정 적용	총 Wi-Fi 접속 건수 × 추정 단가	104,159,505
자원봉사자 활동	도서관에서 근무한 자원봉사자의 노동 시간	시간당 $25.11 (Independent Sector의 2016년 텍사스 자원봉사자 평균 가치) 또는 텍사스 도서관 직원 평균 시급 $23.83 × 75% = $17.87	총 자원봉사 시간 × $25.11 또는 $17.87	20,159,826

디캘브 카운티 공공도서관 영향평가 연구는 참고서비스, 프로그램 참여, 컴퓨터 및 Wi-Fi 이용, 데이터베이스 검색, 자료대출, 상호대차, 관내이용 등 주요 서비스별로 시장유추법과 이용행태를 근거로 단가를 산정하고, 각 서비스의 가치 산정 논리를 상세히 제시하였다(Carl Vinson Institute of Government, 2020, 7-25). 밴쿠버 아일랜드 지역도서관은 자료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대출 및 관내 이용 가치를 산정하되, 이용자가 자료를 소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가 대비 40% 및

80% 할인 시나리오를 적용하였다(Vancouver Island Regional Library, 2016, 6-7).

종합하면 해외의 가치 측정 사례는 측정 대상 측면에서는 자료 대출 중심의 이용가치 측정에서 다영역 기반 접근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단가 설정 측면에서는 시장유추법을 기본 원리로 유지하면서도 서비스별 특성과 지역적 맥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창출하는 다양한 사회적 성과를 보다 현실적으로 측정 체계 안에 반영하려는 방법론적 발전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비이용가치 및 지식재산권(IP) 측정

자료 대출이나 프로그램 참여와 같이 직접 관찰되는 이용가치만으로는 공공도서관이 창출하는 가치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도서관을 현재 이용하지 않는 시민 역시 도서관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서 편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이용가치는 이용가치와 함께 공공도서관의 TEV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논의되어 왔다(표순희, 2014; Aabø, 2009b).

비이용가치는 미래에 이용할 가능성을 위해 도서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선택가치, 자신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도서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얻는 존재가치, 후세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유산가치 등으로 구성된다(Aabø, 2005b; Fujiwara et al., 2019). 이러한 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관찰 가능한 가격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응답자의 WTP나 WTA를 묻는 CVM이 대표적인 측정 방법으로 활용되어 왔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공공도서관과 국가 단위 프로젝트에서 CVM을 활용하여 비이용가치를 측정하였다. 남호주 공공도서관협의회는 비이용자를 포함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측정한 WTP 자료를 활용하여 가치 산정에 반영하였다(SGS Economics and Planning, 2020, 25-28). Fujiwara et al.(2019)은 영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WTP를 모두 조사하여 도서관의 총경제가치를 측정하였다. 또한 디캘브 카운티 공공도서관 연구는 CVM을 기반으로 하되, 시장에서 관찰 가능한 대체재 가격을 활용하여 참고서비스, 프로그램, 컴퓨터 이용, 데이터베이스 이용, 자료대출 등 개별 서비스의 이용가치를 산정하였다(Carl Vinson Institute of Government, 2020, 5-25).

최근에는 비이용가치 측정을 넘어 도서관이 창작과 혁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창출하는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이하 IP)의 가치까지 평가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서관을 단순한 정보 소비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콘텐츠가 생산되는 기반 시설로 인식하는 관점과 맞닿아 있다.

영국 런던도서관은 회원 대상 설문조사와 작가 및 연구자 대상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장서, 집필 공간, 네트워크가 창작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IP 창출에 대한 도서관의 기여도를 측정한 후 경제적 효과를 산정하였다(Nordicity & Saffery Champness LLP, 2021, 5-12). 이러한 접근은 도서관 이용이 정보 소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창작물의 생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가치 측정의 범위 안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영국 국립도서관의 BIPC(Business and IP Centre) 네트워크 평가 역시 비즈니스 지원과 지식재산 창출의 경제적 기여를 측정한 사례이다. 특히 창업과 사업 성과뿐 아니라 비즈니스 자신감 향상(87%), 역량 습득 인식(85%), 지식재산권 이해도 향상(81%)과 같은 개인적 성과를 함께 측정함으로써 도서관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를 보다 다층적으로 파악하였다(Allinson et al., 2023). 또한 콜롬비아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문화유산 기관으로서 도서관의 사회적 영향과 투자수익을 분석함으로써 문화적 가치와 지식 창출 효과를 경제적 가치 평가에 포함하였다(Gómez-Zapata et al., 2023).

이러한 사례들은 공공도서관 가치 측정의 범위가 전통적인 이용가치와 비이용가치를 넘어 창작과 혁신, 지식 생산, 문화적 영향력과 같은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IP 가치 측정은 공공도서관을 지역사회의 창의성과 혁신 역량을 지원하는 기반 시설로 바라보는 최근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비이용가치와 IP 가치의 측정은 대부분 설문조사와 응답자의 인식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측정 결과는 설문 설계 방식과 응답자의 인식 수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가설적 상황에 대한 응답 과정에서 편향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비이용가치와 IP 가치 측정은 도서관의 보이지 않는 가치를 포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측정 결과의 해석과 활용에 주의가 필요하다(Aabø, 2005b).

3.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

도서관의 가치는 이용자가 직접 얻는 편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도서관의 운영 지출과 고용은 지역 경제 전반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며, 이러한 경제적 영향력을 가치 측정 범위에 포함할 것인가는 중요한 방법론적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도서관의 운영비와 자본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이에 따라 유발되는 추가적인 경제활동과 고용효과까지 포함한다(SGS Economics and Planning, 2020, 7, 33). 따라서 최근의 가치 측정 연구는 이용자 편익에 더하여 지역경제 차원의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분석 기법이 활용된다. 가장 널리 적용되는 방법은 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이다. 텍사스주립도서관은 지역경제의 산업연관관계를 반영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IMPLAN 모형을 활용하여 도서관 지출이 지역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으며(Jarrett & Lewandowski, 2017, 31-32), 플로리다(Griffiths et al., 2004)와 사우스캐롤라이나(Barron et al., 2005)를 비롯한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유사한 분석이 수행되었다.

〈표 4〉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수행된 경제적 가치 측정 결과를 보여준다(Barron et al., 2005, 57-60). 해당 연구는 이용자가 얻는 직접적 편익뿐 아니라 도서관 운영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s)를 함께 반영하여 총가치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가 도서관에 지출한 1달러는 약 4.48달러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도서관이 단순히 예산을 소비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투자 대상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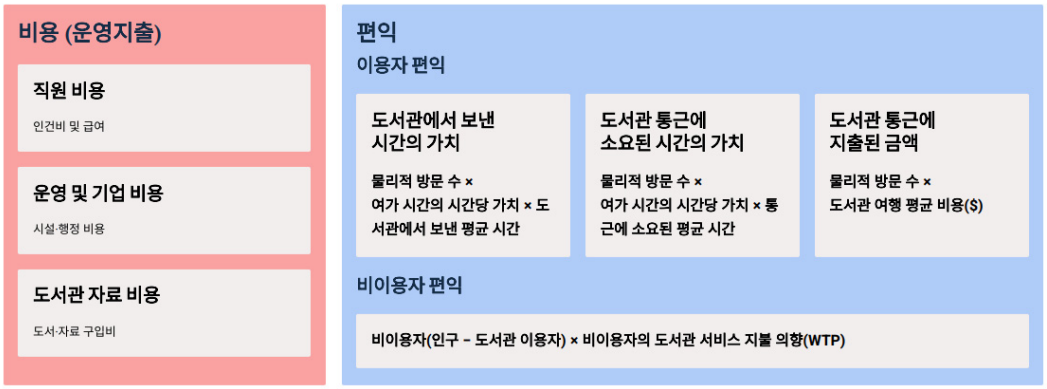
〈표 4〉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공도서관의 가치 측정

측정 가치		측정 내용	주 전체 도서관 산출 가치 합계(USD) (개별 도서관 평균)
경제적 영향력	도서관 지출의 경제적 영향력	• 도서관 운영비 및 자본 지출이 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측정. 도서 구입비의 대부분이 주 외부에서 지출된 것으로 추정하여 75% 감액 • (총 운영비 + 총 자본 지출) - (도서 구입비의 75%)	79,914,285 (1,949,129)
	비조세 수입액	• 도서관 존재로 인해 연방 기금, 기부금, 재단 지원금 등 외부로부터 주 내에 유입된 재원 파악 • Σ(연방 기금 + 기타 기부금 + 외부 자본 수입)	4,730,215 (118,255)
이용가치	도서 대출 가치	• 이용자가 대출을 통해 얻는 직접적 경제적 편익 • (아동/성인 도서 총 대출 건수) × $5.00 * 시장가의 1/2~1/4 수준 적용	64,415,630 (1,657,683)
	비도서 자료 가치	• 비디오, CD 등 비인쇄 매체의 이용가치 측정 • (비도서 자료 총 대출 건수) × $8.76 * 평균 시장가의 1/4 수준 적용	24,071,990 (617,231)
	연속간행물 가치	• 신문/잡지 구독 등의 정보서비스 가치 측정 • (총 구독 수) × $200 * 2002년 평균 연간 구독료 기준	4,142,000 (101,024)
	참고 서비스 가치	• 대면, 전화, 이메일을 통한 인적 전문 지식 서비스의 가치 계량 • (총 참고 트랜잭션 수) × $6.00 * 평균 소요 시간(30분) × 주 평균 시급($12)의 50%	26,269,818 (640,728)
	관내 자료 이용가치	• 도서관 방문 후 대출 없이 내부에서 소비한 가치 • (관내 자료 이용 총계) × $2.43 * 방문객 1인당 최소 투입 시간 및 가치 적용	10,351,105 (272,398)
	시설 및 장비 이용	• 회의실, 컴퓨터, 인터넷, 복사기 등 인프라 활용 가치 • 총 운영 지출 × 10%	7,872,119 (192,003)
총 직접적 영향력		합계	221,767,162

한편 남호주 공공도서관협의회의 가치 평가 연구는 경제영향평가를 통해 도서관 운영지출과 이용자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도서관은 연간 약 1억 1,450만 달러의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이하 GRDP)을 창출하고 약 775명의 전일제 고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GS Economics and Planning, 2020, 7-33).

〈그림 1〉은 남호주 공공도서관협의회가 적용한 가치 측정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서관의 비용은 운영지출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반면, 편익은 이용자 편익과 비이용자 편익을 모두 포함하는 다층적 구조로 설계되었다. 특히 이용자가 도서관 이용에 투입한

시간을 기회비용으로 환산하는 시간가치 접근법과 비이용자의 WTP를 함께 반영함으로써 편익의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하였다(SGS Economics and Planning, 2020, 25-28). 이는 최근의 가치 측정이 단순한 이용 통계의 경제적 환산을 넘어 다양한 사회적 편익까지 포함하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 시간가치 적용 남호주 공공도서관(PLSA)의 가치 측정

보다 간소한 접근으로는 지역경제 승수를 적용하는 방법이 활용된다. 캐나다 밴쿠버 아일랜드 지역도서관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통계청이 제공하는 지역경제 승수를 도서관의 연간 운영 지출액에 적용하여 간접적 파급효과를 산출하였다(Vancouver Island Regional Library, 2016, 11-12). 토론토 공공도서관은 이용자 편익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정한 후 이를 운영비용과 비교하여 ROI를 산출하였으며, 투자 1달러당 약 5.63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였다(Stolarick & Silk, 2013, 22). 영국 국립도서관 BIPC 네트워크 역시 투입 예산 대비 지역경제에 환원된 순부가가치(Net Gross Value Added, 이하 net GVA) 산출함으로써 경제적 기여를 측정하였다(Allinson et al., 2023).

〈표 5〉는 토론토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측정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Stolarick & Silk, 2013, 5). 토론토 공공도서관은 이용자가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얻는 직접적 유형 편익과 도서관 운영 및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간접적 유형 편익을 구분하여 산출한 후, 이를 직접 지출과 함께 통합하여 총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였다. 직접적 유형 편익은 장서 이용, 프로그램, 참고 및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기술 접근, 공간 이용 등을 시장유추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간접적 유형 편익은 운영비, 자본투자, 인건비 및 자료구입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경제승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총 경제적 영향은 약 10억 달러(CAD)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회원권 가치와 개관시간당 가치 등의 지표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도서관 서비스가 시민과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경제적 편익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5〉 토론토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핵심 지표

측정 가치	측정 내용	산출 가치(CAD)
직접적 유형 편익	시민이 도서관의 장서 이용, 프로그램 참여, 참고 및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이용, 기술 접근, 공간 이용 등을 통해 얻는 직접적 경제적 편익	약 680,800,000
간접적 유형 편익	도서관의 운영비, 자본투자, 인건비, 자료구입비 등이 지역경제에서 재지출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	약 141,900,000
총 경제적 영향력	도서관을 통해 창출된 전체 가치에서 투입된 예산을 제외한 순수 경제 이득	약 1,000,600,000
투자 1달러당 경제적 영향력	도서관에 1달러를 투자할 때 지역사회에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 규모	5.63배
평균 가구당 가치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 회원으로서 연간 얻는 평균 경제적 편익	가구당 502
평균 시간당 가치	도서관이 개관하여 운영되는 1시간 동안 창출하는 직접적 경제적 편익	시간당 2,515

또한 〈표 6〉은 밴쿠버 아일랜드 지역도서관(Vancouver Island Regional Library, 2016, 12-14)이 적용한 경제적 가치 산출 체계를 정리한 것이다. VIRL은 이용자가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얻는 직접적 유형 편익과 도서관 운영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간접적 유형 편익을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여기에 지역사회 내 직접 지출을 포함하여 총 경제적 영향력을 산출하였다. 직접적 유형 편익은 장서 이용, 프로그램, 참고 및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기술 접근, 공간 이용 등을 시장유추법으로 환산하여 측정하였고, 간접적 유형 편익은 운영비, 자본투자, 인건비 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경제승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시장유추법과 지역경제 승수효과를 결합하여 도서관 서비스의 직접적 편익과 간접적 편익을 통합적으로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표 6〉 밴쿠버 아일랜드 지역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산출 체계

측정 가치	측정 내용	측정 방법	산출 가치(CAD)
직접적 유형 편익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는 직접적 경제적 편익	장서 이용, 프로그램, 참고 및 DB 서비스, 기술 접근, 회의·학습공간 이용을 시장유추법으로 측정	64,587,999
간접적 유형 편익	도서관 운영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운영비, 자본투자, 인건비, 근무 경험, 지역 내 자료구입비에 경제승수 적용	12,504,214
직접적 지출	도서관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에 직접 투입된 비용	지역사회 내 운영비, 인건비, 자본지출 등	17,691,344
총 경제적 영향력	경제적 영향 총합	직접적 유형 편익 + 간접적 유형 편익 + 직접적 지출	94,783,558

이와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은 공공도서관을 단순한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사회기반시설로 이해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최근의 연구는 이용자 편익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도서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과 사회적 파급효과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4. 가치 측정 시 고려사항 및 주요 흐름

가. 과대 측정 방지를 위한 장치

도서관 가치 측정은 그 결과가 예산 확보와 정책적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측정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해외의 주요 가치 측정 사례들은 자료 가치에 할인계수를 적용하거나 대체 편익을 차감하는 등 가치의 과대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적 조정 장치를 적용하고 있다.

첫 번째는 감가상각률의 적용이다. 토론토와 오하이오의 사례는 자료 대출 가치를 도서 구입가격의 50% 수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관내 열람은 대출 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하였다(Jarrett & Lewandowski, 2017, 27, 45). 이는 자료의 반복 이용 가능성과 실제 시장가치 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가치가 과도하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두 번째는 데드웨이트(deadweight)의 조정이다. 데드웨이트는 도서관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용자가 다른 경로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편익을 의미한다. 캐나다 VOLT 모형은 이러한 편익을 차감함으로써 공공도서관에 고유하게 귀속되는 편익만을 산출하도록 설계하였다(Fraser, 2024, 2). 이는 도서관의 기여분을 보다 엄밀하게 평가하려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보수적인 대리지표(proxy)의 활용이다. 캐나다 북부도서관의 VNLT는 식료품 바스켓 가격지수(food basket price index)와 같은 지역 물가 지표를 적용하여 동일한 서비스라도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가치를 반영하였다(Broad & Ortiz, 2018, 10). 특히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측정이 어려운 영역에서는 과도한 가치 산정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대리지표를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7〉은 해외 주요 사례에서 활용된 가치 과대 측정 방지 장치를 정리한 것이다. 사례별 적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감가상각률 적용, 관내 이용 가치의 추가 감액, 데드웨이트 차감, 보수적 대리지표 활용과 같은 공통적인 보정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가치 측정이 단순히 높은 수치를 산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측정 결과의 신뢰성과 설명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해외 사례의 경험은 가치 측정의 신뢰성이 측정 결과의 크기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국내 공공도서관 가치 측정 체계를 구축할 때에도 가치의 과대 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적 조정 원칙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7〉 해외 사례의 과대 측정 방지 장치 비교

방지 장치	적용 사례	구체적 적용 방식
감가상각률 적용	텍사스, 토론토, 오하이오, 밴쿠버 아일랜드	자료의 평균 구입가격에 40~80% 할인율을 적용하여 대출가치 산정
관내 열람 추가 감액	텍사스(선행 사례 참고)	관내 이용 가치를 대출 가치의 약 12.5~25% 수준으로 환산
데드웨이트 차감	캐나다 VOLT	도서관이 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편익을 차감하여 도서관에 귀속되는 순편익만 산정
보수적 대리지표 활용	캐나다 VNLT	식료품 바스켓 가격지수 등 지역 물가 지표를 활용하여 가치 산정

나. 측정 범위의 확장과 종합 지표 산출

해외 가치 측정 사례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측정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점이다. 초기 연구는 자료 대출과 참고 서비스 등 이용자가 직접 경험하는 편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비이용가치와 지식재산권(IP),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이용가치 중심의 초기 연구는 시장유추법을 활용하여 자료 대출이나 서비스 이용의 경제적 편익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후 CVM이 도입되면서 존재가치와 선택가치, 유산가치 등 비이용가치의 측정이 가능해졌으며, 최근에는 창작 활동과 지식 생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가치 측정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활용되는 방법론 역시 시장유추법에서 CVM, 산업연관분석, CGE 모형 등으로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측정된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의 적용이 일반화되었다. 정책결정자가 도서관 투자 효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ROI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까지 포함한 투자 효과를 평가하는 SROI로 확장 발전하였다. 측정된 가치는 투입 비용 대비 측정된 총 편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BC 비율로 보다 보여줌으로써 도서관 투자의 효과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표 8〉은 공공도서관 가치 측정 범위의 확장 단계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치 측정은 자료 대출, 프로그램, 참고서비스 등 이용가치 중심에서 출발하여 선택가치, 존재가치, 유산가치와 같은 비이용가치를 포함하는 단계로 확대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창업 지원과 IP 창출 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측정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치 측정 결과도 BC, ROI, SROI, Net GVA, GRDP 기여도, 고용효과 등 다양한 지표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도서관 가치 측정이 단순한 이용 편익의 경제적 환산을 넘어 도서관이 창출하는 경제적 및 사회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측정 범위가 확대될수록 요구되는 데이터와 분석 역량도 함께 증가한다는 점에서 국내 공공도서관 가치 측정 체계 역시 데이터 축적 수준과 활용 목적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표 8〉 가치 측정 범위의 확장 단계

측정 범위	측정 대상	주요 방법론	종합 지표
이용가치	자료 대출, 프로그램, 참고 서비스, 관내 이용	시장유추법, 시간가치법	BC, ROI
비이용가치	선택가치, 존재가치, 유산가치	CVM(WTP 측정)	BC, SROI
지식재산권(IP)	창작 지원, 비즈니스 지원	설문조사, 인터뷰, 순부가가치(Net GVA) 분석	Net GVA
경제적 파급효과	운영 지출, 고용, 이용자 유발 지출	산업연관분석(IMPLAN), 경제영향평가	GRDP 기여, 고용효과

다. 측정 결과의 활용과 설명책임성

해외 사례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가치 측정이 일회성 연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 활용

체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가치 측정 결과는 정책보고서의 형태로 정기적으로 발간되며, 의회와 지방정부,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도서관의 성과를 설명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경제적 가치 측정 노력은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미국은 정부성과결과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이하 GPRA)을 통해 공공기관의 성과 보고를 제도화하였으며, 박물관도서관진흥원(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이하 IMLS)은 성과 중심 평가(outcome-based evaluation)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평가 방법의 확산을 지원해 왔다(IMLS, 2000). 이는 도서관이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이용자와 지역사회에 어떠한 변화와 성과를 창출하였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측정 결과는 일반 시민에게도 공개되고 있다. ALA의 도서관 가치 계산기는 이용자가 자신의 도서관 이용 가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여러 국가의 공공도서관 역시 가치 측정 결과를 웹사이트와 정책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가치 측정을 전문가 집단의 분석 결과에 머물게 하지 않고 시민과 공유 가능한 정보로 전환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활용 체계의 의미는 도서관의 성과를 단순한 운영 실적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로 가시화한다는 데 있다. 대출 건수나 방문자 수와 같은 산출 지표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도서관의 기여가 화폐 단위의 가치로 환산됨으로써, 정책결정자와 시민이 도서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가치 측정의 궁극적 목적은 수치 자체를 산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의 존재 이유와 사회적 기여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측정 영역의 확대, 비이용가치와 경제적 파급효과의 반영, 과대 측정 방지 장치의 적용, 그리고 설명책임성에 기반한 결과 활용의 흐름은 향후 국내 공공도서관 가치 측정 체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측정의 신뢰성과 정책 활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해외 사례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국내 적용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의미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Ⅳ. 국내 공공도서관 경제적 가치 측정 적용

1. 국내형 가치 영역 및 측정 항목 설정

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국내 7개 가치 영역 도출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자료 대출과 정보 이용에 따른 직접적 편익 산출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해외의 가치 측정 연구는 자료 이용에 따른 경제적 편익뿐 아니라 교육, 문화, 사회적 포용, 지역사회 참여, 경제적 파급효과 등

다양한 영역으로 측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의 VOLT와 VNLT, 영국의 EVOLS는 공공도서관이 창출하는 가치를 다차원적으로 구조화하고, 각 영역에 적합한 측정 지표를 연결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가치 측정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사례는 세부 영역 구성에는 차이가 있으나 몇 가지 공통점을 보여준다. 첫째, 자료 대출과 정보 제공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이용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교육과 문화 활동을 통한 개인의 역량 향상과 삶의 질 개선 효과를 반영하고 있다. 셋째, 디지털 접근성 향상과 사회적 포용, 지역사회 연결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측정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넷째, 도서관 운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이는 공공도서관의 가치가 단순한 자료 이용을 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및 경제적 성과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해외 사례의 가치 영역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해외의 측정 체계는 각국의 통계 환경과 서비스 구조를 반영하여 설계된 것으로, 국내 공공도서관의 운영 체계 및 NLSS의 수집 항목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부 해외 사례에서 활용되는 정신건강 개선 효과, 고독감 완화 효과, 창업 성과 등의 지표는 현재 국내 공공도서관 통계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반면 국내는 이용자 교육, 독서문화 프로그램, 취약계층 서비스,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운영 실적을 전국 단위로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가치 영역의 구성 논리를 참조하되, 국내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특성과 NLSS의 통계 수집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 9〉와 같이 7개의 가치 영역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사례의 분류 체계를 비교 검토하여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핵심 가치 범주를 추출한 뒤, 국내 공공도서관 서비스 환경 및 NLSS 통계 항목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범주를 선별하고 유사 영역을 통합함으로써 7개 영역으로 재구성하였다. 캐나다 VOLT는 문화, 사회적 포용, 문해력, 건강, 시민참여, 여가, 경제발전의 7개 영역을 제시하였고(Broad & Ortiz, 2016), 영국 EVOLS는 이를 더욱 세분화하여 11개 영역으로 확장한 바 있다(Gordon et al., 2023). 본 연구의 7개 영역은 이러한 해외 분류 체계를 토대로 국내 적용 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재구성한 결과이다.

각 영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자료 접근 영역은 인쇄자료와 전자자료, 연속간행물의 이용을 통해 이용자가 획득하는 직접적 편익을 측정하기 위한 영역으로, 대부분의 해외 사례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치 영역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자료 이용에 따른 대체 구매비용 절감 효과를 중심으로 가치 산정이 가능하다. 둘째, 학습・교육 지원 영역은 이용자 교육, 독서 프로그램, 어린이 서비스 등을 통해 형성되는 교육적 편익을 반영한다. 이는 VOLT와 EVOLS에서 교육 영역이 핵심 가치로 다루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개인의 역량 향상과 평생학습 지원 효과를 포함한다. 셋째, 문화・여가 영역은 문화프로그램과 독서모임,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창출되는 문화 향유와 여가 증진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영역으로, 공공도서관이 지역 문화시설로서 수행하는 역할을 반영한다. 넷째, 디지털 접근 영역은 공공 컴퓨터와 전자자료,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통해 정보격

차를 완화하고 디지털 역량 향상에 기여하는 가치를 포함하며,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해외 사례에서도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영역이다. 다섯째, 사회적 포용 영역은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창출되는 복지적 가치를 포괄하며, 국내 공공도서관이 수행하는 무더위쉼터와 한파쉼터 기능 등 안전망 역할 역시 이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여섯째, 지역사회 허브 영역은 자원봉사 활동, 공간 제공, 기관 협력 등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연결 기능을 반영하는 것으로, VOLT의 시민 참여 및 커뮤니티 기능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일곱째, 경제적 파급효과 영역은 도서관의 운영 지출과 고용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영역으로, 지역경제 승수 등을 활용하여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를 평가한다.

이상과 같이 도출된 7개 가치 영역은 해외의 가치 측정 체계가 포괄하는 핵심 요소를 반영하면서도, 국내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구조와 통계 기반을 고려하여 실제 측정 가능성을 확보한 영역 체계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이는 향후 국내 공공도서관 가치 측정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기본 틀로 활용될 수 있다.

나. 영역별 가치 산출 항목 설정

도출된 7개 영역이 실제 측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 영역에 대응하는 산출 항목이 현행 통계 체계에서 확보 가능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NLSS 2025년 실적 통계조사 항목을 분석하여 가치 영역별로 현재 수집되고 있는 항목과 향후 추가 수집이 필요한 항목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가치 영역별 NLSS 현행 수집 항목 및 추가 수집 가능 항목

가치 영역	NLSS 현행 수집 항목	추가 수집 시 가능한 측정	참고 해외 사례
정보·자료 접근	인쇄자료 대출 수(연령별, 주제별), 전자자료 이용 수, 연속간행물 수, 관내 이용 수	관내 열람 시간, 전자자료 세션당 평균 이용 시간, 도서관 미이용자의 대체 구매 의향(WTP)	텍사스(TSLAC), 오하이오
학습·교육 지원	이용자 교육 횟수·시간·참가자 수(오프/온라인), 독서·학습·기타 동아리 수, 회원 수, 어린이 서비스 이용 수	프로그램 참가 후 역량 향상 자기평가, 아동 독서능력 향상 효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후 취업·직무 역량 변화	영국 BIPC, EVOLS, 호주 PLSA
문화·여가	문화 프로그램(정기·1회성) 수·참가자 수(오프/온라인), 독서 및 학습 프로그램 수, 참가자 수	유사 민간 문화서비스 대체 이용 의향,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재이용 의향, 여가 시간 가치(시간가치법)	호주 PLSA(시간가치법), 런던도서관
디지털 접근	이용자용 컴퓨터 수, 무선인터넷 설치 여부, 모바일 서비스 여부, 전자자료 이용 수	공공 Wi-Fi 이용 건수 및 이용 시간, 무인 대출기 이용 건수, 디지털 취약계층 이용 비율	텍사스(Wi-Fi 단가), 디캘브 카운티
사회적 포용	취약계층(장애인·노인·다문화) 특수자료 수, 봉사대상자 수, 서비스 이용 건수, 관련 예산·공간·프로그램 여부	고독감 해소 효과(우울증 치료비 회피비용), 사회적 고립 방지 가치, 복지서비스 연계 건수	영국 EVOLS(고독감 해소), 캐나다 VNLT
지역사회 허브	자원봉사자 수(남·여), 상호대차 협력관 수, 홈페이지 접속 수, 시설 면적·좌석 수	자원봉사 시간(봉사자당 평균 시간), 회의실 및 공간 이용 건수, 이용 시간, 지역사회 파트너십 연계 건수	캐나다 VOLT, 텍사스(자원봉사 단가)
경제적 파급효과	결산액(인건비, 자료구입비, 운영비), 예산액, 직원 현황	지역 내 구매 지출 비율, 고용 유발 효과, 지역내 총생산(GRDP) 기여분	호주 PLSA, 텍사스(IMPLAN), 밴쿠버 아일랜드

분석 결과 주목할 만한 점은 현행 NLSS가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측정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자료 접근 영역의 연령별 및 주제별 대출 현황, 학습・교육 지원 영역의 프로그램 참가자 수, 사회적 포용 영역의 취약계층 서비스 이용 건수와 관련 예산, 지역사회 허브 영역의 자원봉사자 수 등은 별도의 조사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이는 국내 통계 인프라가 이미 VOLT 수준의 다영역 가치 측정을 뒷받침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며, 단순 대출 중심 측정에 머물러 온 기존 국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다만 측정의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항목은 측정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접근 영역의 무선인터넷(Wi-Fi) 이용 가치는 해외 사례에서 민간 유료 인터넷 서비스와의 대체 관계를 전제로 산정되었으나(Jarrett & Lewandowski, 2017), 국내는 공공기관과 대중교통, 상업시설 전반에 무료 Wi-Fi가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도서관 Wi-Fi의 차별적 대체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가치 측정에 포함할 경우 오히려 과대 측정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국내 공공도서관이 수행하는 고유한 안전망 기능은 가치 측정 체계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공공도서관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여름철(5~9월)에는 무더위쉼터, 겨울철(11월~다음 해 3월)에는 한파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는 폭염과 혹한으로부터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공서비스로서, 영국 EVOLS의 '안식처 제공(Sanctuary)'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쉼터 운영 기간과 지정 근거가 제도적으로 명확하여 계절별 가치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해외보다 정교한 측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적 포용 영역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하여 냉・난방 시설 이용료를 대체비용으로 환산하는 방식의 가치 측정을 검토해볼 수 있다.

2. 국내 적용 조정 원칙 및 로드맵

가. 대출 가치 산출: 국내 출판 시장을 반영한 감가상각률 적용

도서 대출의 경제적 가치는 이용자가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동일한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해외 사례에서는 자료의 구입가격 전액을 적용하기보다 일정 수준의 할인율을 반영하여 이용가치를 산정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토론토와 오하이오 사례는 자료 대출 가치를 도서 구입가격의 50% 수준으로 산정하였으며, 관내 열람은 대출 가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환산하여 산정하였다(Jarrett & Lewandowski, 2017, 27, 45). 이러한 접근은 가치의 과대 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적 조정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출판시장은 해외와 다른 특성을 지닌다. 2014년 이후 강화된 도서정가제로 인해 신간 도서의 할인 폭이 제한되고 있으며, 중고도서 시장 역시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따라서 이용자가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고 동일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정가에 보다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해외 사례에서 적용한 50% 수준의 일률적 감가상각률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국내 시장 환경을 반영한 차등 감가상각률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2025년 기준 한국 출판생산 통계』에 따르면 전체 평균 정가는 19,897원이며, 만화를 제외한 평균 정가는 21,090원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기술과학(27,346원), 사회과학(25,732원), 자연과학(24,796원) 등의 전문서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문학(15,784원), 아동도서(14,503원), 만화(7,098원)는 비교적 낮은 수준을 보인다. 따라서 대체 구매 가능성이 낮은 문학과 아동 분야는 정가의 75~80%, 전문서 중심의 기술과학 분야는 65~70%, 웹툰과 같은 대체재가 풍부한 만화 분야는 해외 사례와 동일한 50% 수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일 수 있다.

특히 NLSS는 주제별 대출 통계를 이미 수집하고 있으므로, 분야별 평균 정가와 차등 감가상각률을 연계하여 보다 정교한 가치 산정이 가능하다. 이는 해외 사례의 기본 원리를 유지하면서도 국내 출판시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 지역 간 격차 보정: 데드웨이트 적용

가치 측정 과정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과대 측정을 방지하는 것이다. 캐나다 VOLT 모델은 데드웨이트(deadweight)를 적용하여 도서관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이용자가 다른 수단을 통해 얻었을 편익을 차감함으로써 순수한 도서관 기여분만을 산출하고 있다(Fraser, 2024, 2).

데드웨이트는 본질적으로 서비스의 대체 가능성과 관련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거주지와 도서관 또는 도심 간 거리, 지역 내 문화시설 접근성 등을 활용하여 대체 가능성을 측정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도시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일수록 대체 수단이 많아 데드웨이트가 높게 적용되며, 농산어촌과 같이 문화와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낮게 적용된다.

이러한 논리를 국내 환경에 적용하되, 보다 객관적이고 활용 가능성이 높은 지표로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의 그룹 분류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운영평가는 봉사대상인구 1인당 시설, 장서, 인력,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전국 공공도서관을 A~E의 5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단순한 규모 지표가 아니라 지역별 서비스 역량과 인프라 수준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데드웨이트 적용의 기준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이에 따라 A와 B 그룹은 상대적으로 높은 데드웨이트를, D와 E 그룹은 낮은 데드웨이트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식은 별도의 전국 단위 설문조사 없이도 기존 운영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 간 서비스 환경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다. 국내 맥락 반영: 논의의 장을 통한 측정 항목의 점진적 확대

가치 측정 체계는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검증과 합의를 통해 발전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에서도 측정 범위는 자료 대출 중심의 이용가치에서 비이용가치와 사회적 가치, 경제적 파급효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추가 측정 항목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무더위 및 한파쉼터의 가치 산정 기준, 고독감 완화 효과 측정 방식, 자원봉사 활동의 대체비용 산정 기준 등은 아직 국내에서 합의된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은 즉시 적용하기보다는 시범 측정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타당성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서관계와 학계, 정책 담당자, 통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측정 항목과 산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개방형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가치 측정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환경에 적합한 측정 모델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라. 데이터 가용성 기반 단계별 측정 로드맵

앞서 제시한 원칙을 종합하면 국내 공공도서관의 가치 측정은 데이터 가용성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즉, 현재 확보 가능한 통계부터 활용하여 측정을 시작하고, 조사 체계와 데이터 인프라가 축적됨에 따라 측정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또한 앞서 도출된 7개 영역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해외의 가치 측정 체계 역시 장기간의 연구와 데이터 축적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각 영역에 필요한 통계자료와 측정 방법론도 상이하다. 특히 국내 공공도서관 분야는 개별 가치 측정 사례는 존재하지만, 이용가치, 비이용가치, 사회적 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합적으로 측정한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다. 또한 해외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측정 요소를 국내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측정 가능성, 데이터 확보 수준, 통계 체계와의 연계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가치 영역의 중요도보다 실제 측정 가능성과 데이터 확보 수준을 기준으로 단계적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확보 가능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우선 측정을 시작한 뒤, 통계 항목 보완, 별도 조사 설계, 외부 분석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점진적으로 측정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측정 체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보다 포괄적인 가치 측정 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림 2〉는 이러한 접근을 4단계 로드맵으로 정리한 것이다. 1단계는 현행 NLSS 통계만을 활용하는 이용가치 모형으로, 정보・자료 접근, 학습・교육 지원, 문화・여가, 디지털 접근, 사회적 포용, 지역사회 허브 등 6개 영역의 이용가치를 매년 측정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사 없이 현행 통계 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단계는 이용가치 확대 모형으로, NLSS 조사 항목을 일부 보완하여 관내 체류 시간 가치와 자원봉사 대체비용 등을 측정 범위에 포함하는 단계이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치 측정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3단계는 비이용가치 통합 모형으로, CVM을 활용한 WTP 조사와 현장조사를 도입하여 비이용가치와 사회적 포용 효과를 본격적으로 측정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설문 설계와 표본조사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4단계는 총가치 모형으로, 산업연관분석과 행정 데이터 연계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와 교육·건강 분야의 장기 성과까지 포함하는 단계이다. 이는 도서관이 창출하는 TEV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단계적 접근은 현행 통계 체계의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해외 주요 국가 수준의 가치 측정 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현실적 이행 경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측정 범위 확대와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연계함으로써 측정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단계 (현재) 이용가치 모형	2단계 (단기) 이용가치 확대 모형	3단계 (중기) 이용·비이용가치 통합 모형	4단계 (장기) 총가치 및 경제적 영향력 모형
측정 범위	이용가치 측정	이용가치 측정 확대	이용 및 비이용가치 측정	총 가치 및 경제적 영향력 분석
측정 내용	• 6개 영역 이용가치 (정보·자료 접근, 학습·교육 지원, 문화·여가, 디지털 접근, 사회적 포용, 지역사회 허브) • 차등 감가상각률 적용 • 데드웨이트 보정 (운영평가 그룹별)	• 관내 열람 시간가치 • 자원봉사 대체비용 • 프로그램 성과지표 반영 (만족도, 재참여 의향 등) • 쉼터 이용가치 반영 (무더위·한파쉼터) • 전자자료 이용가치 확대 (세션당 이용가치 등)	• CVM 설문(WTP) • 데드웨이트 정교화 (운영평가 그룹별 고도화) • 사회적 포용 효과 정밀화 (취약계층별 서비스 효과) • 고독감·사회적 연결 효과 측정	• 산업연관분석 도입 •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 • 교육·건강 분야 장기 성과 분석
데이터 확보 방안	NLSS 기존 항목 활용 (별도 조사 불필요)	NLSS 항목 보완 (조사 항목 추가: 체류시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성과, 쉼터 이용, 전자자료 이용 등)	별도 설문 설계 및 현장조사 도입	통계청 산업연관표 및 행정 데이터 연계
측정 주기	매년	1~2년	3~4년	5년

〈그림 2〉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측정 4단계 로드맵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측정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해외 주요 국가의 가치 측정 사례와 방법론을 분석하고 국내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환경 및 통계 기반을 검토하여 국내 적용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가치 측정의 범위 설정, 단가 산정, 비이용가치 측정,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과대 측정 방지 장치 등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공공도서관에 적용 가능한 가치 영역과 단계적 측정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각 연구 질문에 대한 핵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는 단일한 방법론으로 측정되지 않으며, 이용가치와 비이용가치를 포괄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요구된다. 해외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해 측정 방법론은 이용가치 중심의 시장유추법에서 출발하여 CVM 기반의 비이용가치 측정, 나아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국내 공공도서관의 가치 측정에 적합한 방법론적 쟁점으로는 단가 산정의 기준 설정, 데드웨이트 차감 등 과대측정 방지 장치의 적용, 비이용가치 측정을 위한 CVM 설계, 그리고 측정 결과의 설명책임성 확보 방안이 확인되었다. 이들 쟁점은 국내 적용 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핵심 과제이다. 셋째, 국내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특성과 NLSS 통계 체계를 고려하여 정보・자료 접근, 학습・교육 지원, 문화・여가, 디지털 접근, 사회적 포용, 지역사회 허브, 경제적 파급효과의 7개 가치 영역을 도출하였다. 이 영역들은 해외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핵심 가치 범주를 기반으로 하되, 국내 통계 연계 가능성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결과이다. 넷째, 데이터 가용성을 기준으로 현행 NLSS 통계 활용에서 출발하여 조사 항목 보완, 비이용가치 조사 도입, 산업연관분석 연계로 이어지는 4단계 측정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이는 측정 체계의 즉시 실행 가능성과 장기적 확장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접근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국내 연구가 개별 서비스나 특정 사례 중심의 가치 측정에 머물렀던 한계를 넘어 해외 주요 사례를 비교 및 분석하고 국내 적용을 위한 통합적 측정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를 단순한 편익 산출의 문제가 아니라 설명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도구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셋째, NLSS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현행 통계 기반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영역과 향후 보완이 필요한 영역을 구분하여 실현 가능한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반면 본 연구는 해외 사례와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로서 실제 측정 결과를 산출하거나 제안된 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무더위 및 한파쉼터 가치나 사회적 포용 효과와 같이 합의된 기준이 부재한 항목은 시범 측정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타당성을 축적해 나가는 후속 작업이 요구된다.

향후에는 국가 차원의 시범 측정을 통해 제안된 가치 영역과 측정 방안을 검증하고, 가치 산정 기준과 조정 원칙에 대한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적 가치 측정 결과를 정기적으로 축적하고 공개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성과를 국민과 정책결정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적 가치 측정의 목적은 단순히 높은 수치를 산출하는 데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공공도서관이 창출하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시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투자의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다. 향후 국내에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가치 측정이 이루어져, 공공도서관의 설명책임성을 강화하고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근거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김동석, 고영만, 조동호 (2003). 디지털도서관의 경제성 평가: 국립디지털 도서관 DLP 사례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0(4), 159-193. https://doi.org/10.3743/KOSIM.2003.20.4.159

김희섭, 정영미 (2005). 온라인 정보의 경제적 가치 평가 모델 개발 및 적용. 정보관리학회지, 22(2), 165-184. https://doi.org/10.3743/KOSIM.2005.22.2.165

류희경, 이두영 (2006). 국내단행본 원문정보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3(4), 111-128. https://doi.org/10.3743/KOSIM.2006.23.4.111

문화체육관광부 (2009).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측정 연구 (11-1371000-000160-01).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정혜경, 고영만, 심원식, 표순희 (2009).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측정 연구의 탐색적 메타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4), 117-137. https://doi.org/10.4275/KSLIS.2009.43.4.117

정혜경, 정은주 (2007). 공공도서관의 가치평가를 위한 가상가치평가법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24(1), 187-208. https://doi.org/10.3743/KOSIM.2007.24.1.187

표순희 (2006). 공공도서관 경제적 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 대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2), 243-262. https://doi.org/10.4275/KSLIS.2006.40.2.243

표순희 (2008).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이용가치 측정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표순희 (2014).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혜택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2), 307-329. https://doi.org/10.4275/KSLIS.2014.48.2.307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21). 202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연구보고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문화・관광부문 연구.

Aabø, S. (2005a). Are public libraries worth their price?: A contingent valuation study of Norwegian public libraries. New Library World, 106(11/12), 487-495. https://doi.org/10.1108/03074800510634973

Aabø, S. (2005b). Valuing the benefits of public libraries. Information Economics and Policy, 17(2), 175-198. https://doi.org/10.1016/j.infoecopol.2004.05.003

Aabø, S. & Strand, J. (2004). Public library valuation, nonuse values, and altruistic motivations.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6(3), 351-372. https://doi.org/10.1016/J.LISR.2004.01.003

Allinson, G., Houston, M., & Walters, D. (2023). British Library: Economic Impact Assessment of the Business & IP Centre (BIPC) National Network. ERS Research & Consultancy.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n.d.). Library Value Calculator. I Love Libraries. https://ilovelibraries.org/calculator/

Barron, D. D., Williams, R. V., Bajjaly, S., Arns, J. W., & Wilson, S. (2005). The Economic Impact of Public Libraries on South Carolina.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Boardman, A. E., Greenberg, D. H., Vining, A. R., & Weimer, D. L. (2018). Cost-Benefit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5th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British Library (2003). British Library Economic Impact Assessment. Final Report.

Broad, G. & Ortiz, J. (2016). Valuing Northern Libraries Toolkit: Version 8.0. Ontario Library Service - North.

Carl Vinson Institute of Government, University of Georgia (2020). Estimated Service Valuation and Economic Impact of the DeKalb County Public Library System, 2018. Georgia Public Library Service.

Fitch, L. & Warner, J. (1998). Dividends: The value of public libraries in Canada. The Bottom Line, 11(4), 158-179. https://doi.org/10.1108/08880459810242399

Fraser, B. T., Nelson, T. W., & McClure, C. R. (2002). Describing the economic impacts and benefits of Florida public libraries: Findings and methodological applications for future work.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4(3), 211-233. https://doi.org/10.1016/S0740-8188(02)00123-8

Fraser, D. (2024). Valuing Ontario Libraries Toolkit (VOLT) (Report No. 24-07).

Fujiwara, D., Lawton, R. N., & Mourato, S. (2019). More than a good book: Contingent valuation of public library services in England.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43(4), 639-666. https://doi.org/10.1007/s10824-019-09369-w

Gilpin, G., Karger, E., & Nencka, P. (2021). The Added Value of Public Libraries: Local Library Investment and Student Outcomes (Working Paper No. 2021-06). 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 https://doi.org/10.21033/wp-2021-06

Gordon, J., Blackett, A., Fordham, R., Garraffa, M., Howard Wilsher, S., Leist, E., Ponzo, A., Smith, D., Welsh, A., & Xydopoulos, G. (2023). Libraries for Living, and For Living Better: The Value and Impact of Public Libraries in the East of England. University of East Anglia, CreativeUEA, Health Economics Consulting.

Gómez-Zapata, J. D. & del Barrio-Tellado, M. J. (2023). Social impact and return on investment from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An application to public libraries in Colombia.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64, 102-112. https://doi.org/10.1016/j.culher.2023.09.004

Gómez-Zapata, J. D., Herrera-Moreno, M. A., & Herrero-Prieto, L. C. (2025). Valuing cultural public goods in times of pandemic: What happened to the libraries?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57(1), 21-39. https://doi.org/10.1177/09610006231196345

Griffiths, J. M., King, D. W., Tomer, C., Lynch, T., & Harrington, J. (2004). Taxpayer Return on Investment in Florida Public Libraries: Summary Report. State Library and Archives of Florida. https://dos.fl.gov/library-archives/library-development/data/roi/studies/

Hajek, P. & Stejskal, J. (2015). Modelling public library value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he case of the Municipal Library of Prague.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47(1), 43-55. https://doi.org/10.1177/0961000614525217

Holt, G. E., Elliott, D., & Dussold, C. (1996). A framework for evaluating public investment in urban libraries. The Bottom Line, 9(4), 4-13. https://doi.org/10.1108/08880459610131772

Holt, G. E., Elliott, D., & Moore, A. (1999). Placing a Value on Public Library Services. Public Libraries, 38(2), 98-108.

Howard Fleeter & Associates (2021). The Return on Investment of Ohio's Public Libraries and a Comparison with Other States. Ohio Library Council. https://www.olc.org/ohios-public-libraries-roi-report/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2000). Perspectives on Outcome Based Evaluation for Libraries and Museums.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n.d.). Glossary to Support Grant Reporting. https://www.imls.gov/sites/default/files/glossary.pdf

Jarrett, J. & Lewandowski, B. (2017). Texas Public Libraries: Economic Benefits and Return on Investment. Bureau of Business Research, IC2 Institut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https://www.tsl.texas.gov/roi

Kwak, S. Y. & Yoo, S. H. (2012). The public value of a national library: Results of a contingent valuation survey.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44(4), 263-271. https://doi.org/10.1177/0961000612455820

Missingham, R. (2005). Libraries and economic value: A review of recent studies. Performance Measurement and Metrics, 6(3), 142-158. https://doi.org/10.1108/14678040510636711

Nordicity & Saffery Champness LLP (2021). Economic and Social Impact of the London Library. The London Library.

Ontario Library Service (2018). VOLT (Valuing Ontario Libraries Toolkit). https://resources.olservice.ca/volt/materials

Pearce, D., Atkinson, G., & Mourato, S. (2006). Cost-Benefit Analysis and the Environment: Recent Developments. OECD Publishing.

Poll, R. (2003). Measuring impact and outcome of libraries. Performance Measurement

and Metrics, 4(1), 5-12. https://doi.org/10.1108/14678040310471202

Pooley, P. K., Harper, R., Neal, M., Lewis, R., Whitfield, J., & Scheibe, M. (2010). Taxpayer Return on Investment in Florida Public Libraries. Haas Center for Business Research and Economic Development, University of West Florida. https://dos.fl.gov/library-archives/library-development/data/roi/studies/

Pung, C., Clarke, A., & Patten, L. (2004). Measuring the economic impact of the British library. New Review of Academic Librarianship, 10(1), 79-102. https://doi.org/10.1080/13614530412331296826

Reyes, D. P. & Dorado, D. A. (2017). An Economic Valuation of the Quezon City Public Library - Main: A Mixed Methods Approach on a Total Economic Value Framework. http://library.ifla.org/id/eprint/2233/

SGS Economics and Planning (2020). The Answer is Libraries: The Value of Public Libraries in South Australia. Public Libraries South Australia. https://sgsep.com.au/assets/main/SGS-Economics-and-Planning_The-value-of-public-libraries-in-South-Australia_FINAL.pdf

Skurla, A. & Cyr, C. (2011). Minnesota Public Libraries' Return on Investment. Minnesota Department of Education, State Library Services.

Stolarick, K. & Silk, K. (2013). So much more: The Economic Impact of the Toronto Public Library on the City of Toronto. Martin Prosperity Institute.

Sumsion, J., Hawkins, M., & Morris, A. (2003). Estimating the economic value of library benefits. Performance Measurement and Metrics, 4(1), 13-27. https://doi.org/10.1108/14678040310471211

Tessler, A. (2013). Economic Valuation of the British Library. Oxford Economics.

Usherwood, B. & Linley, R. (1999). New Library - New Measures: A Social Audit of Public Libraries. IFLA Journal, 25(2), 90-96. https://doi.org/10.1177/034003529902500205

Vancouver Island Regional Library (2016). Assessing the Economic Impact of Vancouver Island Regional Library on Our Member Communities. https://virl.bc.ca/wp-content/uploads/2018/08/ROI-Report-PRINT.pdf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ung, Hye-Kyung, Ko, Young-Man, Shim, Wonsik, & Pyo, Soon-Hee (2009). An exploratory

meta analysis of library economic valuation stud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4), 117-137. https://doi.org/10.4275/KSLIS.2009.43.4.117

Jung, Hyekyung & Jung, Eunju (2007). An analysis of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o measure the economic value of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4(1), 187-208. https://doi.org/10.3743/KOSIM.2007.24.1.187

Kim, Dong Seok, Ko, Young Man, & Cho, Dong Ho (2003). Economic efficiency of digital library: A case study on the DLP of national digital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0(4), 159-193. https://doi.org/10.3743/KOSIM.2003.20.4.159

Kim, Hee-Sop & Jung, Young-Mi (2005).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n economic value assessment model for online inform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2(2), 165-184. https://doi.org/10.3743/KOSIM.2005.22.2.165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Public Investment Management Center (2021). 2021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research report: Detailed guidelines for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in the culture and tourism sector.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09). A Study on Measuring the Economic Value of Public Libraries (11-1371000-000160-01). Seoul: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 Offic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yo, Soon-Hee (2006). A study on measuring of the economic value of a publ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0(2), 243-262. https://doi.org/10.4275/KSLIS.2006.40.2.243

Pyo, Soon-Hee (2008). A Study on the Method of Measuring the Economic Use Value of Public Libraries.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Pyo, Soon-Hee (2014). A study on measuring the benefits of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2), 307-329. https://doi.org/10.4275/KSLIS.2014.48.2.307

Ryu, Hee Kyeung & Lee, Doo Young (2006). A study on the economic value measurement of domestic monograph full-text information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3(4), 111-128. https://doi.org/10.3743/KOSIM.2006.23.4.111